

<2014년 5월 28일 수요일말씀>

부지런하여 <성자>를 차지하고 <휴거>를 차지해라

본 문 잠언 12장 24절, 27절

* 초록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양손 기본 제스처>나 <한 손 기본 제스처> 하기.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 ‘진실한 몸과 마음’을 드리며 <예배>로 영광 돌리러 온 여러분 모두에게 영원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의 평강이 충만하기를 빕니다.

이번 주 주일에는 ‘자기와 싸워서 이기고 성자를 차지해라.’라는 주제로 말씀했습니다.

먼저 <주일말씀의 핵심>을 짚어 주면서, 이어서 <오늘 말씀>을 전해 주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부지런하여 <성자>를 차지하고 <휴거>를 차지해라.』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의 뜨거운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충만하여 수고와 노력의 축복을 받고 자기와 싸워 이겨, 모두 <성자>를 차지하고 <휴거 300선>을 차지하여 <천국 황금성>을 차지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시작> 주일말씀으로 전초

공부를 하든지, 돈을 벌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먼저는 자기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하기 싫으면 공부도 못 하고, 돈도 못 벌고, 어떤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존재하려면, 자기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자기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잘되고 형통하려면, 먼저 자기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말씀, 기도, 성자 사랑, 성자와 분체와 교통, 찬양, 주 증거’ 등 <신앙생활>도 먼저는 자기와 싸워서 이겨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기와 싸워 이기기’ 라는 말은 ‘수고와 노력과 몸부림과 땀 흘림’ 입니다. ‘땀’ 보다 더한 것이 있으니, 곧 ‘보이지 않은 심정의 눈물’ 이라고 했습니다.

그 어떤 일을 하든지 가만히 있으면서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땀을 흘리지 않으면 얻는 것이 없습니다.

- 조각을 할 때도 더 완벽하게 하려면, 더 많이 손을 대면서 수고하고 노력해야 더 세밀하고 완벽한 ‘조각상’ 을 만들 수 있습니다.

- (단상 앞의 꽃을 가리키며) 단상 앞에 꽃꽂이한 것이 보이지요?

꽃을 무턱대고 막 꽃으면, 아름답지 않고 조화롭지 않습니다. 정성을 들여서 더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아름답고 조화로운 <꽃꽂이 작품>이 됩니다.

<기회>가 와도 자기와의 싸움을 하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기도하면서 해야 기회를 ‘승리’로 이끌어 갑니다.

<휴거>도 마찬가지입니다. ‘휴거의 때’를 맞아 ‘휴거의 기회’가 왔어도 자기와의 싸움을 하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기도하면서 해야 <휴거 300선>까지 ‘승리’로 이끌어 <천국 황금성>을 차지합니다.

수고와 노력과 몸부림으로 ‘자기’와 싸워 이겨서 <성자>를 차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휴거>를 차지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인생을 ‘수고와 노력 없이 사는 자’도 있고, ‘수고하고 노력하며 사는 자’도 있습니다. 결국 <자기>를 존재시키기 위해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도 ‘수고와 노력 없이 하는 자’가 있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며, 심정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자’가 있습니다.

역시 ‘수고와 노력 없이 쉽게 사는 자’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얻는 것이 없습니다.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며, 심정의 눈물을 흘리면서 행하는 자는 결국 행한 대로 <구원>을 얻고, <자기 소망>을 이루고, <휴거>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함으로 <성자>도 차지하고, <주>도 차지하고, <천국 황금성>도 차지하게 됩니다.

수고하고 노력함으로 <성자>를 차지하고, 수고하고 노력함으로 자기를 만들어 <휴거>를 차지하면, 결국 ‘자기에게 영원히 유익’입니다.

<전환>

‘자기와 싸워서 이기는 것’은 쉽게 말해서 ‘수고, 노력, 몸부림, 땀 흘림, 심정의 눈물’을 말합니다.

힘들고 고생돼도 <자기 인생>을 위해, <자기 휴거>를 위해, <자기 유익>을 위해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을 흘리며 심정의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수고하고 노력하며 더 귀를 기울이고 깨달으려 하는 만큼 ‘은혜와 불’을 받게 됩니다. 그 ‘은혜와 불’이 자기에게 오니, 결국 <자기>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것을 피해서 편하게만 살려고 합니다. 그로 ‘낮은 차원’에 처해 살게 되고, ‘얻는 것’이 없고, 그 영도 ‘차원이 낮은 영의 세계’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순간’은 편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의 편안함’으로 인해 ‘평생, 영원히’ 고생하며 살게 됩니다.

<편하게 사는 것>이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놀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 어느 것도 얻지 못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육>도 <영>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끝납니다.

힘들고 고생되지만, 수고하고 노력하면서 자꾸 행하여 ‘얻을 것’을 얻고 사는 것이 <정말 편하게 사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거기서 포기하지 말고 또 겪으면서 거듭하면, 처음과는 비교가 안 되게 잘됩니다.

글씨도 편하게 쓰면, 그만큼 ‘멋’도 없고, ‘마음’에 안 들고, 누가 읽어도 글씨를 못 알아봐서 못 읽습니다.

글씨를 쓰더라도 정성을 들여서 쓰면 그만큼 좋은데, 하물며 ‘인생’은 어떻겠습니까?

성자는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편하려고 하다가 결국 ‘게으름’에 처하게 된다. 결국 더 불편하게 된다.” 하셨습니다.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1>

편하려고 정원의 잡초를 안 뽑고 가만히 놔두면, 허리를 펴고 놓고 쉬니 순간은 편합니다. 그러나 정원은 ‘잡초 밭’이 되고, ‘모기 정원’이 되고, ‘뱀과 각종 해충’이 모여들어 사람까지 괴롭게 합니다.

부지런한 자는 허리가 아프고 힘들지만, 수고하고 노력하여 정원의 잡초를 다 뽑습니다. 그로 인해 결국 자기가 ‘아름다운 정원’을 가지고 누리게 됩니다. <끝>

순간 편하려고 ‘자기 할 일’을 안 하고 게으르게 가만히 있으면, <뇌와 마음 밭>에 해충이 생기고, <몸>에는 때가 생기고, <옷>은 더러워져서 냄새가 나고, ‘얻는 것’이 없어서 입에 풀칠하게 됩니다.

<게으른 자>가 편하게 사는 것 같지만, 게을러서 가만히 있으니 얻는 것이 없고, 그로 인해 더 힘들게 되고, 자기만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결국 불편하게 살게 됩니다.

<부지런한 자>는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얻게 되고, 그로 인해 자기가 누리게 되고, 더 편하게 살게 됩니다.

<부지런한 자>가 ‘행복’을 취하고 행복하게 삽니다.

<전환>

* <영상>을 보여 주면서, ‘게으른 것’에 대해 말씀해 주겠습니다.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2>

부지런한 토끼는 게으른 자를 알고, 아예 그 집에서 마음 놓고 삽니다. 앞에서 쿨쿨 잠도 잡니다. 사람이 게으르니, 앞에 토끼가 있어도 잡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마당에 꿩이 놀다가 피곤해서 잠을 자고 있는데도 게으른 자는 귀찮아하고 힘들어하며 잡지 않습니다. <끝>

* 또 <영상>을 보여 주면서, 말씀해 주겠습니다.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3>

게으른 자는 <뇌와 몸>이 굳어서 아예 ‘부지런한 생활’을 못 합니다. 고로 일어나는 것을 싫어합니다. <몸>이 굳어서 일어나서 걷는 것이 불편하다며, 앉아서 걸습니다.

게으른 자는 힘들다고 말도 안 하고 입을 다물고 삽니다.

게으른 자는 힘들다고 매일 ‘목 운동’을 안 합니다. 그러다 급기야 목이 굳어 ‘목 디스크’에 걸리고, 목이 아파서 ‘목(木)장승’처럼 뻗뻗하게 서서 다닙니다.

게으른 자는 <활동량>이 재미만큼도 안 됩니다. <끝>

‘많이’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때’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때’ 행하는 자가 부지런한 자입니다.

‘제때’ 행하지 않으면, ‘많이’ 행했어도 얻지 못합니다.

〈휴거 때〉에 ‘자기 휴거’를 위해 행해야 수고하고 노력하고 행한 만큼 높은 차원에 오르게 됩니다. 지금이 〈휴거〉를 이룰 ‘제때’이며 ‘절호의 기회’의 때’입니다. 믿습니까?

- 믿는다면, 이때를 놓치지 말고 ‘자기’를 위해 부지런히 행하기 바랍니다.

- 못 믿는다면, 제발 〈휴거〉에 대해 가르쳐 주는 자는 완벽히 가르쳐 주고, 배우는 자는 완벽히 배우기 바랍니다. 그리고 깨닫고 행하기 바랍니다.

<전환>

게으른 자는 하면 되는데 자꾸 미룹니다.

자기 할 일을 자꾸 뒤로 미루는 자는 정말 게으른 자입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지 않고, 일어나는 시간을 자꾸 뒤로 미루고 안 일어나는 것도 게으르기 때문입니다.

‘자기 존재’를 위해서, 시간이 되면 벌떡 일어나 하루를 시작해야 됩니다. 모두 ‘자기 존재’를 위한 것입니다.

〈성자〉와 약속하기 전에 먼저 〈자기〉와 약속해야 됩니다.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고 먼저 〈자기〉와 약속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와의 약속’을 꼭 지켜야 됩니다.

‘자기와의 약속’을 지킨 자가 ‘자기와 싸워 이긴 자’입니다.

‘자기와의 약속’을 지키고, 성자와 약속하여 ‘성자와의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자기>와 싸워 이기고 <성자>를 차지한 것입니다.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4>

‘약속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은 ‘약속한 장소에서 기다리던 자를 만나는 것’과 같습니다.

청중이 구름같이 오고 가는 거리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자기를 밀어도 <약속한 장소>에 있어야 ‘사랑하는 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아무리 힘들어도 <성자와 약속한 시간>에 일어나야 ‘사랑하는 성자’를 만나게 됩니다. <끝>

<약속한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듯이, 성자는 <약속한 새벽 그 시간>에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자는 말씀하시기를 “약속한 시간이다. 약속한 시간에 없으면, 나는 왔다가 그냥 간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시간 약속>뿐 아니라 다른 것도 나 성자와 약속하고, 나와 약속한 것을 지켜라. 약속을 지켜야 약속대로 된다.” 하셨습니다.

<약속한 시간>에 일어나 성자를 만나면, 그 시간은 <성자 시간>이 됩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못 일어나 성자를 못 만나면, 그 시간은 <자기 시간>이 됩니다.

<잠시 쉬었다가>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5> 중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시대>가 왔습니다.

<성약역사>가 와서 진행 중입니다.

그중에서도 최고 핵심 역사인 <영 휴거 역사>가 와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때 모두 ‘시대의 잠, 휴거의 잠’에서 깨어 일어나 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자>를 만나게 되고, <주>를 만나게 되고, <천국 황금성>을 만나게 됩니다. 믿습니까? <끝>

<잠시 쉬었다가>

성자는 말씀하시기를 “<목적>만 전달하면 된다. 그러니 <목적>을 정확히 전달해라.” 하셨습니다.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6> 중요

<휴거>는 무엇입니까?

‘본체와 분체를 맞는 것’입니다. <끝>

<휴거>가 뭐라고요? ‘본체와 분체를 맞는 것!’ 믿습니까?

<아는 자>는 ‘한 마디’로 깨우쳐 주지만, <모르는 자>는 ‘열 마디’를 하면서 더 답답하게 만듭니다.

<아는 자>는 ‘하나의 잠언’ 으로 의미 전달을 하지만, <모르는 자>는 ‘한 권의 책’ 으로도 의미를 전달하지 못하여 더 의심되게 만듭니다.

<잠시 쉬었다가>

모르니까 다음 달에 지진이 나서 뒤집어질 곳으로 이사 가서 새 집을 짓고 희망에 차서 잔치합니다.

성자는 말씀하시기를 “모르니까 ‘거기’ 에 있는 것이다. 알면 ‘거기’ 에 있지 않는다. 모르니 저렇게 산다.” 하셨습니다.

모르니까 ‘거기’ 에 있는 것이다.

알면 ‘거기’ 에 있지 않는다.

→ 이 말을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7> 중요

모르니까 ‘저 기성’ 에서 사는 것입니다.

모르니까 ‘저 사망권’ 에서 사는 것입니다.

모르니까 ‘거기’ 에서 사는 것입니다.

모르니까 ‘거기’ 에서 저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끝>

몰라서 ‘거기’ 에서 ‘그렇게’ 살다가 자기 영혼을 흑암 세계로 보내어 실패했는데도 자기가 성공했다며 잔치하고 있습니다.

<아는 자>만 알고, 따르는 자들에게 가르쳐 ‘거기’ 에 처하지 못하게 합니다. 가르쳐 줘어도 <그 말을 듣고 깨닫고 안 자>만 ‘거기’ 에 처하지 않고 ‘성공 길’ 을 갑니다.

불법을 행한 자들은 ‘하늘에서 흑암으로 떨어진 별들’입니다.

성자는 말씀하셨습니다.

“저 사람은 세상에 빠져 살다가 세상의 취함을 받고 하늘로부터는 버림받은 자이며, 이 사람은 세상에서는 버림받았으나 하늘의 취함을 받은 자다.

<육적인 자>는 ‘세상’에서 취했고, 그 육이 죽으니 그 영혼을 ‘흑암’이 취했다.

사랑하는 자들아. 고생돼도 생명길을 가야 된다.”

세상에 빠져 살다가 그 <육>을 ‘세상’이 취하고, 그 <영>을 ‘흑암’이 취했어도 겉으로 보면 모릅니다.

<육계>에서는 ‘육’을 보니 모릅니다.

<영계>에서 ‘영’을 봐야 됩니다.

<육계>는 ‘육의 눈’을 떠야 보이고, <영계>는 ‘육의 눈’을 감고 ‘마음의 눈, 생각의 눈, 영의 눈’을 떠야 보입니다.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8>

성공이란, 영원해야 됩니다.

잠깐 누리고 끝나는 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영>이 성공해야 영원합니다. <끝>

<물질, 게임, 이성, 세상>은 ‘거기’입니다.

누구든지 ‘거기’에 빠지면, 그것을 생명시하는 것입니다.

술, 담배에 빠진 사람은 그것에 대한 <장점>만 내세우며 말합니다.

이성에 빠진 사람 역시 그것에 대한 <장점>만 내세우며 삽니다.

‘거기’에 빠져 사니, 그것을 생명시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판단하는 장점’으로 인해 결국 <건강>을 잃고, <구원>을 잃고, <휴거>를 잃게 됩니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사랑하여 무엇을 더 해 주며 축복해 주면, 오히려 ‘거기’에 빠져서 ‘그것’을 더 좋아하며 사랑하며, ‘그것’을 <우상>으로 삼고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삽니다. 고로 더 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무엇을 주시면, 주신 성삼위와 함께 쓰고 먹고 마시며, 그것을 가지고 더욱 대화하고 이야기하며, 삼위 앞에 더 영광 돌려야 됩니다. 믿습니까?

* 모두 <자기>를 위해 자기와 싸워 이겨 게으름에서 벗어나 부지런하여 <성자>를 차지하고, <주>를 차지하고, <휴거 300선>을 차지하기를 축원합니다!

* 또한 성자와 <약속한 시간>과 <약속한 것들>을 지켜 약속대로 반기를 축원합니다!

* 또한 ‘거기’에 빠져 ‘그것’을 생명시하며 살지 말고, ‘성자’께 빠져 ‘성자의 말씀과 사랑’을 생명시하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마쳤습니다.